

드러냈어.

비르지니는 가장 먼저 자신의 쉼터가 있는 곳을 다시 보고 싶어 했어. 풀은 수줍은 기색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갈음을 도우려는 자세로 팔을 내밀었지. 비르지니는 미소 지으며 풀을 받아들였고, 둘은 함께 오두막을 나왔네. 상쾌한 공기에는 낭랑한 울림이 있었어. 산등성이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온 사방천지 금류로 흐르던 물줄기는 여기저기 마른 물거품의 흔적만을 남겨두었네. 군데군데 풀이 패여 살풍경한 정원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고, 거대한 모래 더미가 초원 가장자리를 뒤덮어, 비르지니가 미역 감던 못도 가득 메워버렸지. 그럼에도 두 그루의 코코넛 나무만큼은 끄떡 없이 서 있었고, 유독 푸르렀다네. 그러나 그 근처에는 잔디도, 아치를 이루던 통로도, 새들도 다 사라지고 없었으니, 오직 십자매 넷 마리만이 근처의 바윗부리에서 제 새끼를 잃은 것을 한탄하며 구슬피 노래할 뿐이었지. 이 황폐한 광경을 보고 비르지니가 풀에게 말했네.

“오빠가 여기로 새들을 데려왔는데, 폭풍은 그 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어. 오빠가 가꾼 이 정원도 이렇게 망가졌어. 땅 위의 모든 것은 파멸되고 마니와. 변하지 않는 건 하늘 밖에 없어.”

풀이 대답했지.

“뭐든 좋으니 하늘에 있는 것을 너한테 줄 수는 없을까!